

# “신학”(θεολογια; Theologia): 역사적 고찰과 개혁파적 이해



김은수(한국개혁신학연구소 연구소장, 조직신학)

##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는 정체모를 다양한 수식어가 가미된 신학들이 난무하는, 가히 ‘신학의 홍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20세기의 한 시기를 풍미하였고, 지금도 유령처럼 우리의 주위를 떠돌며 그 자체로서 또는 서로 합종연횡을 통하여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신학적 조류들의 일단만을 예를 들어 보아도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신정통주의 신학, 실존주의 신학, 세속화 신학, 신죽음의 신학, 희망의 신학, 과정신학, 정치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제3세계 신학, 토착화 신학, 생태신학, 에큐메니칼 신학, 종교다원주의 신학, 철학적 신학, 해석학적 신학, 과학신학, 포스트모던 신학, 문화신학, 공공신학, etc. 이렇게 다양한 새로운 신학적 기도(企圖)와 기획(企劃)들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과 시사점들이 없지 않지만, 반면에 그러한 신학들이 가지는 한계와 정통적인 기독교 신학을 위협하는 심대한 여러 가지 위험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새로운 기초의 현대신학들이 말하는 ‘신학’(theology)에 대한 정의들을 몇 가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 신학적 정체성의 혼란스러운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 존 맥쿼리(John Macquarrie) - “신학이란 어떤 종교적인 신앙에 대한 참여와 반성을 통하여, 그러한 신앙의 내용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고 적합한 언어로 설명하기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연구로 정의된다.”<sup>1)</sup>
- 이안 바부르(Ian Barbour) - “신학은 어떤 신앙들과 관련된 규범적 공동체의 조직적인 그리고 자기-비평적인 성찰이다.”<sup>2)</sup>
- 고든 카우프만(Gordon D. Kaufman) - “기독교 신학은 인간과 세계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의 해석을 주는 것이며, 그것은 각기 인간론, 우주론, 그리고 신론으로 표현되는바, 인간과 그의 환경, 그리고 궁극적 실재에 대한 총체적인 해석이다.”<sup>3)</sup>
- 로즈메리 루터(Rosemary R. Ruether), 엘리자베스 존슨(Elizabeth A. Johnson) - “신학은 성차별주의(sexism)에 대한 비판이며 해방이다.”<sup>4)</sup> “기독교 신앙은 [성차별에 있어 지속적 폭력성에 대한 폭로와 비판을 통하여 참된 인간성을 명징하게 고양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해방적 실천에 기여하며, 나아가 모든 창조세계, 인류와 자연 모두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sup>5)</sup>
- 구스타보 구티에레즈(Gustavo Gutierrez) - “역사적 실천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서의 신학은 해방시키는 신학이며, 인류 역사의 변혁적 해방의 신학이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 성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변혁의 과정에 있어 그 일부가 되기를 시도한다.”<sup>6)</sup>

1) John Macquarrie, *Principles of Christian Theology*, 2nd e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7), 1.

2) Ian G. Barbour, *Myths, Models, and Paradigms: A Comparative Study in Science and Religion* (New York: Harper & Row, 1974), 176.

3) Gordon D. Kaufman, *God the Proble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17.

4) Rosemary Radford Ruether, *Sexism and God-Talk: Toward a Feminist Theology* (Boston: Beacon Press, 1993).

5) Elizabeth A. Johnson, *She Who Is: The Mystery of God in Feminist Theological Discourse* (New York: Crossroad, 1992), 8.

6) Gustavo Gutie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Revised Ed. (Maryknoll, NY: Orbis Books, 1988), 12.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도 이렇게 시대적 사상들과 풍조를 표방하는 ‘새로운 기조(基調)’의 신학들이 출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출현하며 심각한 도전을 해올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학’의 정체성의 혼란과 ‘참된 신학의 실종’(the disappearance of true theology)이라는 참담한 현상과 관련하여 데이비드 웰스(David Wells)는 “교회의 삶에서 신학이 실종되었으며…복음주의 세계에서 신학이 실종되었다… 교회에 신학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신학에 하나님이 없다”고 우울하게 진단한다.<sup>7)</sup> 이러한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참된 기독교 신학의 진정한 정체성을 재확인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와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시대를 풍미하고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시대사조’(Zeit-Geist)에 근거한 신학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정립된 “사도적 정통 개혁신학”(the Apostolic-Orthodox Reformed Theology)을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재정립하여야만 한다. 참으로 ‘교회의 갱신’은 하나님의 말씀위에 바로 서는 ‘신학의 갱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그러한 시작을 위한 하나의 작은 시도로서, 정통적인 기독교 ‘신학’의 의미와 이해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본래적인 ‘신학’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봄과 동시에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신학”(theologia)을 재정의(re-definition)함으로써 한국개혁신학이 지향해야 할 신학적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II. “신학”(θεολογία; Theologia): 용어와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

도대체 “신학”이란 무엇이며,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신학(θεολογία)이라는 용어는 어원적으로 “신[神]”(θεός, God)과 “말[言說]”(λόγος, word/discourse/reason, 말/언설/이성)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학’(θεο-λογία, theologia)은 “하나님에 대

7) David F. Wells, *No Place for Truth* (Grand Rapids: Eerdmans, 1993), 김재영 역, 『신학실종』(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148, 151.

한 언설”(God-talk, speaking about God)을 의미한다. 즉, 그 어원적 의미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함”(speaking about God)이 바로 ‘신학’이며, 나아가 이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a systematic reasoned knowledge of God)을 의미하게 되었다.<sup>8)</sup>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설교” 혹은 “신적 진리에 대한 선포”,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가르침 혹은 신지식”(神知識, the knowledge of God, *sacra doctrina*)이 곧 ‘신학’이다.

그러나 많은 신학적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신학”(θεολογία, theologia)이라는 용어 그 자체는 성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고대 이방 헬라적 용법으로부터 차용된 것이다. 이 “신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역사적 정황을 살펴보자면,<sup>9)</sup> 먼저 고대 헬라인들은 신(神)들에 대한 신화적 혹은 서사적 설명으로서,<sup>10)</sup> 나아가 후기에는 신화(mythologia)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나 비판적인 해석으로서 ‘신학’(theologia)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후자의 의미에서 신학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플라톤(Plato, 427-347 B.C.)으로 알려졌으며,<sup>11)</sup> 이후 아리스토텔레스

8) Cf. Abraham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trans. J. Hendrik de Vries (Grand Rapids: Eerdmans, 1954), 229-30.

9) “신학”(θεολογία, theologia)이라는 용어의 개념과 그것이 기독교회에서 사용된 역사적 정황과 관련하여는 F.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I. i. 1-9; A.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228-47; Richard A. Muller,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vol. I, *Prolegomena to Theology*, 2nd e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152-58; Edward Farley, *Theologia: The Fragmentation and Unity of Theological Education* (Philadelphia: Fortress, 1989), 29-48; Wolfhart Pannenberg, *Theology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trans. F. McDonagh (Philadelphia: Westminster, 1976), 7-14; 228-96; 유해무,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송영」(서울: 성야, 2007), 71-133을 참조하라.

10) 예를 들어, 오르페우스(Orpheus), 호메로스(Homerus), 헤시오스(Hesiodus)의 서사문학이나 신화적 작품에 “신비신학”(theologia mystica)라는 표현이 나온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이 세계에 대하여 신화적으로 묘사한 그들을 “신학자”(theologians)라고 불렀고, 이와 반대로 자신처럼 이성에 근거하여 비판적 사고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철학자”(philosophers)라고 했다.

11) Cf. Plato, *Republic*, 379a in *Plato: Complete Works*, ed. John M. Cooper (Indianapolis/Cambridge: Hackett, 1997), 1017.

(Aristotle, 384–322 B.C.)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의 문헌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이성적인 탐구로서의 이론적 학문(theoretical science)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물리학(physics - 자연에 대한 탐구), 수학(mathematics - 수(數)에 대한 탐구), 그리고 신학(형이상학; theology, first philosophy, 혹은 metaphysics - 존재에 대한 탐구)이 바로 그것이다.<sup>12)</sup>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적인 것과 분리된 영원한 부동(不動)의 실재”(the unmoved Mover)가 존재하며, “이 존재가 곧 신(God)”인데, “그 신(神)의 본질적 실재성은 최상으로 선하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영원성, 최고 선(善), 그리고 생명은 그에게 속한다”고 했다.<sup>13)</sup> 이와 같이 고대 헬라 철학자들에 의해 이 세계와 신들(gods)에 대한 신화를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함으로써, 신학이 곧 존재에 대하여 탐구하는 형이상학이 되었으며, 곧 “최고의 존재”인 신(θεός)에 대하여 이성적으로(λογία) 탐구하는 신학(θεολογία)은 최상의 “제일 철학”(the first philosophy)이 되었다.<sup>14)</sup>

이 마지막 용례를 이방선교가 본격화 되면서 헬라/로마 세계와 마주한 신학적 최전선(最前線)에서 초대교회 변증교부들(the Apologetic Fathers)이 차용하여 기독교 신학을 변증하고 표현하는데 사용하였다.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 c.100–165)은 최초로 교회 안에서 “신학”(theologia)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는 기독교만이

12) Cf. Aristotle, *Metaphysics*, II,1, 1026a, 19–22 in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vol. II, ed. Jonathan Barn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1620.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형이상학(metaphysics)은 존재 일반에 대하여 다루는 ‘존재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존재론(ontology)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 가운데 ‘최고의 존재’(the highest reality), ‘부동의 동자’(the unmoved Mover: 움직여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로서의 신(God)에 대하여 다루는 것을 “제일철학”(first philosophy), 곧 ‘신학’(θεολογία, theologia)이라고 불렀다. Cf. Johannes Hirschberger, *Geschichte der Philosophie*, 강성위 역, 『서양철학사』(상권) (서울: 이문출판사, 1983), 234ff.

13) Aristotle, *Metaphysics*, XII,7, 1072b, 27–30; 1073a, 4–5 (p. 1695).

14) Aristotle, *Metaphysics*, II,1, 1026a, 20–30 (p. 1620).

“유일하게 확실하고 유익한 철학”이라고 했다.<sup>15)</sup>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c.150-220)의 경우 기독교 신학이야말로 “참된 철학”(the true philosophy)이며, 이방 신화에 대비시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자(the Son)에 의해서 전달된 것”으로 “영생하는 말씀(the Logos)의 신학(theologia)”이라고 하였다.<sup>16)</sup> 그러나 클레멘트에 의하면, 철학은 헬라인들에게 필수적인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헬라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따라서 그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과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에게 주어진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으로 이끌도록 하는 하나의 준비, 곧 ‘초등교사’로 보았다(cf. 갈 3:24).<sup>17)</sup>

기독교 신학 역사에 있어 초기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애초에 신지식과 관련하여 주로 “그노시스”(γνῶσις, knowledg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것이 초대교회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던 혼합주의 이단사상인 영지주의(Gnosticism)와 관련됨으로써 오리겐(Origen, c. 185-254)<sup>18)</sup>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를 계승하여 성경에 계시된 참된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말함과 관련하여 “신학”(theologia)이라는 용어를 기독교적 의미에서 보다 풍성하게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역사가인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 c.264-349)의 시대에는 이미 이 용어가 기독교적인 의미로 완전히 보편화되어 정착되었고, 유세비

15) Justin Martyr, *Dialogue with Trypho*, 8 in *Ante-Nicene Fathers* (이후 ANF로 인용함), vol. 1 (Peabody, Mass.: Hendrickson, 2004), 198. Cf. 유해무,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송영」, 83.

16) Clement of Alexandria, *The Stromata*, I, 13 and 18 in *ANF*, vol. 2 (Peabody, Mass.: Hendrickson, 2004), 313, 321.

17) Cf. Clement of Alexandria, *The Stromata*, I, 5, *ANF*, vol. 2, 305. 그는 말하기를, “양 언약들(옛 언약과 새 언약 / 구약과 신약을 제공하신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the same God)께서 헬라인들에게 헬라 철학을 주셨던 분이라는 사실은 전능자(the Almighty)께서 헬라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나타내신다. 이것은 다음의 사실로부터 분명해진다. 즉, 헬라 철학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부터도,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로부터와 마찬가지로, 신앙을 받은 자들, 곧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신다. 그들은 시간적으로 분리된 세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The Stromata*, VI, 5, *ANF*, vol. 2, 489f.

18) 그의 주요저작 가운데 하나인 “Περὶ ἀρχῶν”(De Principiis, 「원리에 관하여」)는 기독교 신학사에 있어 최초의 조직신학서로 여겨진다.

우스는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말씀”(ὁ λόγος, 예수 그리스도)이 곧 하나님임에 대하여 풍성하게 말함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분명하게 선포하였기에 그를 “신학자”(ὁ θεολόγος, the theologian)라고 불렀다.<sup>19)</sup> 또한 고대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신학’(θεολογια)이라는 용어가 이성적인 합리성(rationality)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묵상(meditation) 혹은 관조/성찰(contemplation)과 관련된 신비적(mystical)인 의미를 수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동방교회의 전통은 인간의 이성적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불가해성(incomprehensibility), 하나님의 초월적이며 신비적인 측면, 즉 ‘부정의 신학’(theologia negativa)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동방교회의 헬라 교부(Greek Fathers)에게 있어 신학(theologia)은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가르침”을 의미하게 되었다.

반면에 초기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신학’(theologia)이라는 용어를 주로 이방 신화나 철학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였고, 기독교적인 의미로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sup>20)</sup> 예를 들어, 고대 서방교회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은 신지식(the knowledge of God)에 대한 신학적 강설과 연구에 대하여 ‘신학’(theologia)이

19) Cf. Yves M.-J. Congar, *A History of Theology*, trans. Hunter Guthrie (Garden City, N.Y.: Doubleday, 1968), 29. 이러한 의미에 있어 초대교회 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저자들, 특별히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신학자들”(theologians)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사도 요한(the apostle John)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논구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 c.330-389)가 “신학자”(the theologian)이라는 칭호로 불렸다. Cf. A.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231-32.

20) Cf. 유해무,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송영」, 77-82. 심지어 초기의 주요 서방교회 교부들(the Latin Fathers: 예를 들어 Cyprian, Ambrose, Gregory the Great, Boethius)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신학적인 의미에 있어 theologia라는 용어 자체를 알지 못했다. Cf. Yves Congar, *A History of Theology*, 32.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이때 신학적 연구와 행위(doing theology)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함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풍성한 신학적 발전들이 그들에 의해 계속하여 이루어졌다.

21) Cf. A.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237-38. 비록 어거스틴이 몇 글에서 theologi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은 이방 헬라적 용법으로서의 ‘신학’을 지칭하고 있다. Augustine, *The City of God against the Pagans*, trans. R. W. Dy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VIII, ch. 1과 5를 보라.



라는 용어 대신 “doctrina”(가르침, ‘교리’, ‘학문’ 등의 의미를 가짐; e.g., ‘doctrina Chistiana’, ‘sacra doctrina’)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다.<sup>21)</sup> 그러나 12-13세기에 이르러 중세 대학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대학에서 연구되고 가르치는 스콜라 신학(Theologia Scholarium; Scholasticism)이 발흥했을 때, 법학, 의학 등 다른 학문 분과와 마찬가지로 신학도 하나의 체계적인 최고 학문분과로 재정의(re-identification)될 필요가 생겨났다.<sup>22)</sup> 이러한 필요에 따라 아벨라르(Peter Abelard, 1079-1142)는 단순히 ‘신론’(the doctrine of God)만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 전체를 포괄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탐구”(an investigation of Christian teachings)라는 의미에서 ‘신학’(theologia)이라는 용어를 확장된 개념으로 수용하여 사용하였고,<sup>23)</sup>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의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은 이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sup>24)</sup> 이와 같이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논리학에 기초하여 전체적인 기독교 신앙과 가르침들을 보다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체계적인 학문(science)으로서 ‘신학’(theologia)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정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θεο-λογία) 이해에 있어 노출되는 문제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본래적 의미의 ‘신’(θεο)학보다는 하

22) 서방교회에서 “신학(theologia)이라는 용어는 대학의 ‘신학부’(facultas theologia)라는 표현과 함께 처음으로 일반적인 용법으로 정립되었다.” B. Geyer, “Facultas theologia: Eine bedeutungsgeschichtliche Untersuchung,” *Zeitschrift für Kirchengeschichte*, vol. 75 (1964): 143. 여기서는 W. Pannenberg, *Theology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8에서 재인용함.

23) 기독교 교리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시도한 그의 신학적 저작들인 *Theologia Summi Boni* (1121); *Theologia Christiana* (c. 1125); *Theologia Scholarium* (c. 1133-1134) 등을 참조하라. 특히 그의 저작에서 ‘스콜라 신학(Theologia Scholarium)’이라는 명칭이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24) Cf. Alistair McGrath, *Histor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Oxford: Blackwell, 1998), 소기천 외 3인 역, 『신학의 역사』(서울: 지와 사랑, 2005), 5. 그러나 아퀴나스의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에서도 theologia 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어거스틴을 따라 ‘sacra doctrina’라는 표현이 훨씬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나의 학문으로서의 신학(*λογία*)이 더 강조되는 경향이다.

그리하여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대체로 ‘신학’(theologia)라는 용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비록 빈번하게 ‘신학’(theologi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으나, 사변적인 중세 스콜라 신학을 “영광의 신학”(theologia gloria)이라 비판하며, 이에 대비시켜 “십자가의 신학”(theologia crucis)을 주장하였다.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 또한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대신에 어거스틴을 따라 “가르침”(교리, *doctrina*)이라는 용어를 선호했다.<sup>25)</sup> 이후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Reformed Orthodoxy) 신학자들 또한 초기에는 이 용어가 성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래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잠시 주저하다가, 곧 이 용어의 성경적인 신학적 의미를 정당화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sup>26)</sup> 예를 들어,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을 가장 원숙하게 체계화한 프란시스 튜레틴(Francis Turretin, 1623-1687)은 비록 ‘신학’(theologia)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그 철자와 형식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내용과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logos tou theou, *logia tou theou*; 롬 3:2; 벰전 4:11; 히 5:12)이라는 표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성경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고,<sup>27)</sup> 이후 이 용어는 그 보편성을 확보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다.

헬라어로부터 유래된 ‘신학’(theologia)이라는 용어는 이방인들의 학파들로부터 거룩한 용법으로 전이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하늘의 가르침(*doctrina coelestis*)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동의어들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고전 2:7), “바른

25) Cf. 유해무,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송영』, 72f.

26) Cf. R. A. Muller,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vol. I, 152-58.

27) F.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I.i.2.

말씀의 형식”(딤후 1:13),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딤후 1:1), “[미쁜 말씀의] 가르침”(딤후 1:9)이라 불리어졌고, 또 다른 유사한 표현들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theologia)는 존속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그리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 용어가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하는 지식(the saving science)을 표현함에 있어 가장 적절한 것이기 때문이다.<sup>28)</sup>

그러나 ‘신학’(θεο-λογία)의 어원적 용례들을 살펴보면, “θεο-”는 동시에 주격(the subject)과 목적격(the object)으로 이해 될 수 있다.<sup>29)</sup> 이것을 주격으로 취할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Deus dixit)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the speaking of God, the Word of God), 곧 “신적 계시”(the divine revelation)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목적격으로 취할 경우, “하나님에 관하여 말함”(the speaking about God)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튜레틴은 “신학(theologia)이라는 용어가 ... 적절하게 사용되려면, ‘하나님의 말씀’(Theou Logon)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에 관한 말씀’(logon peri tou Theou)이라는 의미 모두를 말해야 한다. 이들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결합되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up>30)</sup>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두 측면을 종합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곧 신적 계시에 근거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the speaking about God)’이 곧 신학(θεο-λογία)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학(Christian theology)이 단순히 신화학(mythology - 신[적인 것]들에 대하여 말함)이나 일반 종교학, 혹은 “거짓된 신학”(theologia falsa)이

28) F.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I, i. 4-5.

29) A.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230.

30) Francis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trans. Georage M. Giger (Phillipsburg, N.J.: P & R Publishing, 1992), I, i. 7.

아니라 진정 “참된 신학”(theologia vera)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 곧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에 관하여 말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가 신학함(doing theology)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성경, 곧 하나님의 계시)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말들”은 반드시 서로 나뉘일 수 없도록 결합되어야만 하지만,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서로 구분해야 하고, 동일시 혹은 혼동해서도 안되며, 또한 서로 나누거나 분리해서도 안된다. 만일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하거나 혼동하게 되면, 그때 인간의 신학이 절대화 혹은 교조화(敎條化)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또한 서로 나누거나 분리되면 그 신학은 더 이상 “참된 신학”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무오하고 불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의 결과인 “우리의 신학”(theologia nostra)은 언제나 부분적이고 상대적이며 도상(途上)에 있는 “순례자의 신학”(theologia viatorum)일 따름이기 때문이다(cf. 고전 13:12).

이러한 “신학”(theologia)에 대한 역사적인 용법에 따라 일반화된 현대적 이해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좁은 의미에 있어 신학(the theology proper)은 “신론”(특별히 ‘삼위일체론’, the doctrine of Trinity)을 의미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바, 인간과 우주, 즉 피조세계와 관계하시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전(全) 영역들을 포괄하는 성경적인 기독교 교리(Doctrina Christiana) 전체를 포괄한다.<sup>31)</sup> 이러한 의미에서 대체로 기독교 신학은 다음의 5가지 사실들을 포함한다:

- (1) 가장 좁은 의미로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the Triune God)에 대한 참된 신지식을 말한다.
- (2) 정확무오하게 영감된 성경에 주어진 신적 계시 그 자체(divine revelation itself)로서 구원에 필수적인 모든 지식의 총합을 포함한다.
- (3) 직접적인 성경의 해석이나 혹은 성경의 여러 본문들로부터 추출된 결

31) Cf. Henry C. Thiessen,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revised by Vernon D. Doerksen (Grand Rapids: Eerdmans, 1994), 1-2.

론들로서 신앙으로 수납된 지식들을 포함한다.

- (4) 신앙의 설명 혹은 변증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성의 방법에 의해 신적 계시로부터 구성된 신지식(*scientia, science*) 혹은 신적 지혜(*sapientia, wisdom*)를 포함한다.<sup>32)</sup>
- (5) 마지막으로 가장 광의의 의미에서 신학은 신학교에서 교육되는 모든 교과목들, 성경언어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주석, 구약/신약신학, 교회사, 교의와 교리사, 교의학(조직신학) 뿐만 아니라 기독교 윤리, 선교, 목회, 신학교육 등 모든 실천적 분과들을 포괄하여 사용한다.<sup>33)</sup>

### III. ‘신학’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와 이해

#### 1. 고대 동방교회 교부들의 ‘신학’(θεολογια)에 대한 정의와 이해

사도시대 이후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변증으로서 신학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세기의 가장 중요한 변증가인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 c.100–165)은 최초로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 “신학”(theologia)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였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를 하나님으로 부르다, 하나님으로 선언하다”(theologein)라는 의미를 가졌다.<sup>34)</sup> 헬라철학에 정통했던 저스틴은 그 스스로 “그리스도에 관한 철학자”(기독교 철학자)로 여겼고, 신학을 헬라철학보다 더 우월한 “참된 철학”(true philosophy)이라고 정의했다. 그 이유는 모든 세상의 철학들이 “로고스의 씨앗”(logos spermatikos)에 근거하지만, 기독교

32) Richard A.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3), 298–99.

33) Cf. James L. Garrett, *Systematic Theology: Biblical, Historical, and Evangelical*,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90), 3.

34) 유해무,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송영』, 85f.

교는 선재하는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로고스(the Logos) 자신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sup>35)</sup> 즉,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philo-sophia)이고, 기독교는 참 진리이자, 지혜(the Logos)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참된 철학”이며, 나아가 “성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요(theologein), 주님이심을 말함(kyriologein)”이 곧 신학이라고 이해하였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c.150-c.220)** 또한 저스틴을 계승하여 ‘지혜/진리를 사랑하는 것’으로의 철학과 신학을 거의 동의어로 이해하였으며, 그 두 가지의 종합을 시도하였다.<sup>36)</sup> 이러한 클레멘트의 신학방법론은 신학사에 있어 이성과 신앙, 철학과 신학을 종합하려는 ‘포괄적인 신학적 유형’(theological inclusivism)의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주었다. 그는 이방 헬라 철학에 대하여 말하기를, 오히려 헬라 철학자들(cf. Plato, Aristotle)이 ‘하나님을 말함’(신학)에 있어 더 오래되고 우월했던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철학을 배웠다고 하며,<sup>37)</sup> 특히 “모세

35) Cf. Justin, *The Second Apology*, XIII, ANF, vol. 1, 192.

36)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당시 주류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곳을 떠돌며 철학을 배웠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판테누스(Pantaenus, c.200년경 사망)에게 신학을 배웠으며, 그곳의 교리문답학교(catechetical school)에서 가르치며 교양 있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의 변증에 주력하였다. Cf. Hubertus R. Drobner, *Lehrbuch der Patrologie* (Freiburg im Breisgau: Herder, 1994), 하성수 역, 『교부학』(왜관: 분도출판사, 2001), 215f. 크라프트(H. Kraft)는 클레멘트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그의 목표는] 성경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과학적 방법의 도움으로 성경의 해석과 철학적 비판 아래서도 견뎌낼 수 있는 이론적인 사상의 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 클레멘트는 단지 의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철학과 신학을 서로 밀접하게 관련시킨 최초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한다. H. Kraft, *Early Christian Thinkers: An Introduction to Clement of Alexandria and Origen*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4), 33. 여기에서는 Roger E. Olson, *The Story of Christian Theology: Twenty Centuries of tradition and Reform*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9), 김주한/김학도 역, 『이야기로 읽는 기독교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02에서 재인용함.

37) Clement of Alexandria, *The Stromata*, I,21,28, ANF, vol. 2, 324ff, 340f.

38) Clement, *The Stromata*, I,22, ANF, vol. 2, 335.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가인 필로(Philo, B.C.20-A.D.50)를 따라 모세를 “신학자”로 지칭함으로써 기독교회에서 “신학자”(theologian)라는 표현을 최초로 사용하였다. Cf. 유혜무,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송영』, 92, 126 n.53.

는 신학자(theologian)이자 선지자였으며, 또한 거룩한 율법의 해석자"라고 했다.<sup>38)</sup> 이러한 방식으로 클레멘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언설[선포]함이 신학"이라고 이해했다.<sup>39)</sup> 나아가 그는 "지혜/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the Logos=the Wisdom/the Truth)에 의하여 완전한 진리가 주어진 기독교야말로 "참된 철학"(true philosophy)이라고 했으며, 또한 "영생하는 말씀의 신학(theology of the Logos)", "정통 신학"(orthodox theologia)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sup>40)</sup> 클레멘트에 의하면, 절대적 진리인 로고스(the Logos),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참된 신학이다. 나아가 그는 신앙과 지식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지식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지식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sup>41)</sup> 그러나 구원의 길에 있어 그 출발점은 언제나 믿음(faith)이고, 최상의 것을 소망(hope)하며 지식의 길에서 연단되어, 그 목적지인 사랑(love)은 그 과정을 완성한다고 하였다(cf. 고전 13:13).<sup>42)</sup> 클레멘트에 따르면, 실로 신지식(神知識)은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믿음은 모든 지식의 토대라고 하였다.<sup>43)</sup>

신학사에 있어 최초의 조직신학서로 간주되는 『원리에 관하여』(Περὶ ἀρχῶν, *De Principiis*)와 함께 수많은 신학적 저술들을 남긴 **오리겐(Origen, c.185-c.254)**은 비록 후대에 이단논란이 있었지만(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공의회), 고대 동방교회의 가장 위대하고 조직적인 교부신학자로 평가된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아 철학과 신학을 종합하여 거대한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오리겐에 있어 철학을 공부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의 기독교 철학, 즉 "신적 철학"(divine philosophy)으로서의 '신학'을 세우기 위함이며, 이것은 사색적이기도 하

39) 유혜무,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송영』, 91, 92.

40) Clement, *The Stromata*, I, 13, 18; iv, 25; v, 8, ANF, vol. 2, 313, 321; 438; 455.

41) Clement, *The Stromata*, V, 8, ANF, vol. 2, 444.

42) Clement, *The Stromata*, II, 6, iv, 7, ANF, vol. 2, 354, 418f.

43) Clement, *The Stromata*, II, 2-3, ANF, vol. 2, 348-49.

44) Cf. Henri Crouzel, *Origen*, trans. A. S. Worrall (Edinburgh: T & T Clark, 1989), 161.

지만 성경계시와 사도적 신앙전통에 기초한 영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었다.<sup>44)</sup> 그는 이방 철학이나 이단적인 사상(영지주의)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하여 그들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의 지적인 체계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sup>45)</sup> 이와 같이 오리겐은 신학에 있어 철학과 이성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지만 신적계시와 신앙의 역할 또한 더욱 강조하였다. 나아가 오리겐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함”(theologein)이 신학이며, 이것을 성부와 성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로 신학을 확장하였고, 이로써 온전한 ‘삼위일체 신학’의 정립을 향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오리겐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말하는 “경륜”(오이코노미아, oikonomia)과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를 말하는 “신학”(테오로기아, theologia)을 구별하였고, 구원의 경륜을 통하여 알려지는바, 삼위 하나님의 내적 존재의 의미를 말하며 구별된 ‘세 위격들’(treis hypostases)이 영원부터 존재한다(coeternal)고 말했다.<sup>46)</sup> 이와 같이 오리겐으로 말미암아 ‘경륜’(oikonomia—the economic Trinity, 경륜적 삼위일체)은 이제 ‘신학’(theologia—the immanent Trinity, 내재적 삼위일체)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리겐은 “예수님, 선지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신학이라는 새롭고 광범위한 어법을 정착”시켰고,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역시 신학이라고 했다.<sup>47)</sup>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c.296–373)**는 “니케아 신앙의 확고한 승

45) 오리겐이 기독교 신앙을 꿰뚫은 증기플라톤 철학자 켈수스(Celsus) 대하여 반박하며 쓴 변증서인 『켈수스에 대한 논박』(*Contra Celsum*, c. 248)은 2-3세기에 이루어진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변증 운동의 최고봉으로 평가된다. Cf. Henry Chadwick, *Origen: Contra Celsu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IX.

46) Origen, *Commentary on St. John's Gospel*, II, 6. Cf. Catherine M. LaCugna, *God for Us: The Trinity and Christian Life*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1), 2, 4, 29. 오리겐은 삼위일체론과 관련해서, “위격”을 설명하기 위하여 “휘포스타시스”(ὑποστάσις)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47) 유해무,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송영』, 93, 94f.

48) Johannes Quasten, *Patrology*, vol. III, 20. 그리하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는 아타나시우스를 “교회의 기둥”(the pillar of the Church)이라 칭송했다(*Or.* 21, 26).



리자이자 위대한 파수꾼”으로 평가되며,<sup>48)</sup> 그는 이전의 교부들과는 달리 ‘기독교 철학자’가 아니라 교회의 신학자와 감독으로서 신학을 전개한 첫 번째 헬라교부이다.<sup>49)</sup> 또한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의 이단적인 삼위일체론을 논박함에 있어 자신의 신학을 오직 성경과 그 가르침에 부합하는 ‘신앙의 규범’(regula fidei) 및 ‘니케아 신조’(Nicene Creed)에 정초시킴으로서 정통적인 신학방법론의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었다.<sup>50)</sup>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주의와의 신학적 투쟁에 있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성자의 완전한 신성’이며, 이것은 니케아 신조의 핵심내용인 성자께서 성부와 “ὁμοούσιος”(homoousios, 동일본질)이심을 천명함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그는 구약(cf. 신 6:4; 5:13; 시 119:90,91; 146:7,9)과 신약(요 1:1)에서 성자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서 창조와 섭리 사역에 동역하셨음을 말하는 가운데, “말씀” 곧 성자를 하나님이라 칭하는 모세와 사도 요한을 “신학자”(theologian)라고 불렀다.<sup>51)</sup> 이와 같이 아타나시우스에게 있어 “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설이다. … 신학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경배이다. 이 점에서 신학은 삼위일체론이다.”<sup>52)</sup> 그러므로 아타나시우스는 “만일 신학이 삼위일체론에서 완전하다면, 이 신학은 참되고 유일한 경건이며, 또한 선이요 진리이다”라고 말한다.<sup>53)</sup>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설이 곧 신학”이라는 고전적인 이해는 카파도키아 교부들(the Cappadocian Fathers)에 의하여 보다 완전하게 정립되었는데, 그들은 다음의 세 신학자들, 가이사라의 바실(Basil of Caesarea, 329–c.377/379), 바실의 동역자인 나지안주스의 그레

49) Cf. Hans Von Campenhausen, *The Fathers of the Greek Church*, trans. L. A. Garrard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1963), 69.

50) Cf. Athanasius, *Discourses Against the Arians*, I, 9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이후 NPNF로 인용함), vol. 4, 311.

51) Cf. 유해무,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송영』, 98–100.

52) 유해무,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송영』, 101.

53) Athanasius, *Discourses Against the Arians*, I, 18, NPNF, vol. 4, 317.

고리(Gregory of Nazianzus), 그리고 바실의 동생인 닛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 c.330-389)를 말한다.<sup>54)</sup> 이들은 고대 동방교회 신학의 정립과 특히 성부와 성자께서 “동일본질”(homoousios)이심을 고백한 니케아 공의회(the Council of Nicea, 325) 이후 계속된 신학적 논쟁에 참여하여 ‘성령 하나님의 참된 신성’을 분명히 고백함으로써 정통 삼위일체론 확립에 지대한 신학적 공헌을 하였다. 기독교회 역사를 통하여 “위대한”(ὁ μέγας, the Great)이라는 칭호를 받은 **대(大)바실(Basil the Great of Caesarea)**은 신학사에 있어 최초로 『성령에 관하여』(*On the Holy Spirit*, c.375)라는 책을 저술하였기 때문에, 그는 흔히 “성령의 신학자”로 알려졌다.<sup>55)</sup> 그는 성령께서도 성부와 성자와 함께 “똑같이 찬양(ὁμότιμον)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이전에는 거의 동의어로 혼용되던 “우시아”(οὐσία, [공통적] 본질)와 “히포스타시스”(ὑπόστασις, [개별적] 실체)의 개념적 구분을 통하여 삼위격(τρεῖς ὑποστάσεις)의 명확한 구별과 동시에 그 본질에 있어 하나이심(μία οὐσία)을 분명하게 했다.<sup>56)</sup> 여기에서 신학방법론과 관련하여 한 가지 특기할 만 한 것은 바실이 그의 저작을 통하여, 소위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신학적인 교리의 정통성을 논증하는 방식, 즉 “교부 논증”(argumentum patristicum)의 방법을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이 방법론은 어거스틴과 키릴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며, 이후 신학사에 있어 계속하여 중요한 신학원리로 사용되고 있다.<sup>57)</sup>

나아가 사도 요한과 더불어 “신학자”(the theologian, 451년 칼케돈 공의회)라는 칭호를 받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54) 이들에 대한 간략한 입문서로는 Anthony Meredith, *The Cappadocians*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95); 김석환, 『교부들의 삼위일체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을 참조하라.

55) Cf. St. Basil the Great, *On the Holy Spirit*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80).

56) Basil the Great, *Letter*, 38, *NPNF* (2nd Series), vol. 8, 137-41.

57) Cf. Hubertus R. Drobner, *Lehrbuch der Patrologie* (Freiburg: Verlag Herder, 1994), 하성수 역, 『교부학』 (예관: 분도출판사, 2001), 384.

Nazianzus)는 '신학(theologia)과 '경륜(oikonomia)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신학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에 관하여 말하는 것'으로 아주 협의의 의미로 정의했다.<sup>58)</sup> 그는 바실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신학적으로 더욱 심화시켜, 성령 하나님의 "동일본질"(homoousia)을 명확하게 언명함과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 서로 구별된 "특성"(ιδιότης)을 가진 "휘포스타시스"(hypostasis)의 개념을 상호간의 "관계"(σχέσις, relation)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발전을 이루었다. 즉, 삼위 하나님의 '세 위격'들은 서로 구별된 특성을 가지시며, 또한 서로 다른 "세 존재들"이 아니라 "세 관계들"임을 분명히 했다.<sup>59)</sup> 이러한 '관계적 존재론'(relational ontology)에 의하면, 성부는 "출생하지 않으신 분"(ἀγεννησία)이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출생하신 분"(γέννησις, generation)이시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출되신 분"(ἐκπόρευσις, procession)이시나, 세 위격이 공히 하나의 동일본질(homoousia)이시며, 함께 영원하시다.

또한 "교부중의 교부", "닛사의 별"(제2차 니케아공의회), 그리고 "우주적 박사"(고백자 막시무스)라고 불린 닛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본질과 모든 행위나 역할에 있어 항상 공유적이기 때문에 각 위격의 분명한 구별에도 불구하고 "삼신론"(tritheism)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적 동일본질성을 그의 행위(사역)에까지 확장하여 그 하나되심을 "외부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opera trinitas ad extra indivisa sunt)라는 원리를 주장하였으며, 이것을 세 위격간의 상호관계성을 설명하는 "페리코레스시스"(περιχώρησις, co-inherence 혹은 inter-

58) Gregory of Nazianzus, Orat. XLV, iv. 그에 의하면, '신학(theologia)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며, '경륜(oikonomia)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59) Gregory of Nazianzus, Orat. XXXI, ix. 즉,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이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혹은 "사역"(행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구별된 위격들의 상호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이름이다. Cf. 김평채, 『교부 열전(중권)』(서울: CLC, 2005), 180.

penetration, 상호공재성)라는 개념으로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또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는 비록 신학적 개념의 명증성을 위해 철학적 개념과 용어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신학적인 논증을 위하여 항상 성경과 교부들의 전통에 의존하였다. 또한 그는 신학함에 있어 이성적인 이해보다는 신앙의 수용을 강조하는 “기독교 진리의 신비(mysterion)”를 말하는 “신비의 신학”(theologia mysterionis)을 주장했으며, 나치안 주스의 그레고리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cf. 신적 불가해성[divine incomprehensibility]), 항상 ‘무엇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정의 방식’(via negationis)으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는 “부정의 신학”(theologia negativa)의 원리를 정초시켰다. 이와 같이 카파도키아의 세 신학자들의 위대한 신학적 공헌을 통해 “하나의 본질 - 세 위격[실체]”(μία οὐσία - τρεις ὑποστάσεις)이라는 형식으로 고대 동방교회의 정통 삼위일체 신학이 완전히 정립되어졌고, 이것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381)에서 교회의 정통교의(orthodox dogma)로 공식화 되었다.

## 2. 서방교회 전통에서의 ‘신학’(theologia)의 정의와 이해

2세기경 라틴어를 사용하는 카르타고(Carthage)를 중심으로 기독교 문화가 융성하였으며, 이곳에서 터툴리안, 키프리안,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제롬), 어거스틴 등 위대한 서방교회 교부들이 활동하였다.<sup>60)</sup> 신학사에 있어 ‘서방신학의 아버지’ 혹은 ‘라틴신학의 대변자’로 일컬어지는 **터툴리안(Tertullian, c.160-c.225)**은 ‘삼위일체’(trinitas, Trinity)와 같이 현재 우리가 상용하고 있는 수많은 신학용어들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터툴리안은 구원의 경륜과 신비를 말하는 ‘오이코노미아’(oikonomia)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과 신비를 말하는 ‘신

60) Cf. 서요한, 『초대교회사』(서울: 그리스, 2010, 수정3판), 363.

61) Cf. La Cugna, *God for Us*, 27ff.

학’(theologia)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군주론(Monarchianism)으로 설명하려 하였다.<sup>61)</sup> 터툴리안에 의하면,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며, 그 다음 하나님의 경륜(oikonomia) 아래에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 말씀 곧 아들을 가지는데, 그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다. … 우리가 믿는 바, 그는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은 신인(Man and God)이신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우신 분이다.”<sup>62)</sup> 이러한 방식으로 터툴리안은 주로 ‘경륜’으로부터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럼으로써 터툴리안은 “하나의 본질 - 세 위격”(una substantia - tres personae)이라는 서방교회 삼위일체론의 기초를 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로부터”(a Deo et Filio) 나오신다고 함으로서 최초로 “필리오퀘”(Filioque)의 개념을 제시하였다.<sup>63)</sup> 또한 신학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와는 달리 터툴리안은 대체로 이방철학에 대하여 아주 적대적이었고, 그것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이단시 하였다. 그는 “이방 철학은 이단들의 조상”이며,<sup>64)</sup> “철학자들의 하나님”(philosophorum Deus)은 성경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다.<sup>65)</sup> 이러한 터툴리안의 신학적 태도는 다음과 같은 그의 유명한 도발적 언명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도대체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카데미와 교회 사이에, 이교도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무슨 일치가 있는가? … 우리의 신앙에 더하여 더 이상 추구할 믿을 만한 것은 없다. 우리의 신앙은 탁월하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더 이상 없다.”<sup>66)</sup> 나아가 그는 기독교 신앙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Credo quia absurdum est),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62) Tertullian, *Against Praxeas*, II, ANF, vol. 3, 598.

63) Tertullian, *Against Praxeas*, VII, ANF, vol. 3, 603.

64) Tertullian, *On Prescription against Heretics*, VII, ANF, vol. 3, 246.

65) Tertullian, *Against Marcion*, II, xxvii, ANF, vol. 3, 319.

66) Tertullian, *On Prescription against Heretics*, VII, ANF, vol. 3, 246.

67) Tertullian, *On the Flesh of Christ*, V, ANF, vol. 3, 525.

다”(*Credo quia impossibile est*)라고 말했다.<sup>67)</sup> 그의 이러한 언명들은 지식이나 이성보다 단순한 신앙을 절대적 우위에 두는 ‘배타적인 신학적 유형’(theological exclusivism)의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주었다.

흔히 동방교회의 오리겐에 비견되고, “은총의 박사”(Doctor Gratiae)라 불리우며, 고대 서방교회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은 신학을 “신성(혹은 ‘신적 본질’)에 대한 이해 혹은 강론”(*de divinitate ratio sive sermo*)이라고 정의했다.<sup>68)</sup> 그는 또한 “믿기 위하여 이해하라”(intellige ut credas), 그리고 “이해하기 위하여 믿어라”(crede ut intelligas)<sup>69)</sup>라는 유명한 신학적 명제를 남겼다. 또한 “신앙은 추구하고 지성은 발견한다”(fides quaerit, intellectus invenit),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nisi credideritis, nonintelligetis, 사 7:4, LXX)”라는 언명은 그의 신학방법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다.<sup>70)</sup> 이것은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선성 및 신앙과 신학과의 역동적이며 변증법적인 관계를 간명하게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실로 참된 신학이 없는 신앙은 맹목이며, 참된 신앙이 없는 신학은 공허하다. 이와 같이 어거스틴은 신학과 철학을 관계지움에 있어, 양극단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터툴리안을 동시에 비판적으로 극복하며 새로운 신학적 종합의 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신학을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scientia, science)이라기보다는 ‘신적 지혜’(sapientia, wisdom)로 이해하였다.<sup>71)</sup> 따라서 그는 신학에 있어 지적

68) Augustine, *The City of God*, VIII, 1, *NPNF* (1st Series), vol. 2, 144.

69) Augustine, *Serm. XLIII*, c. vii; *Serm. CXXVI*, n. 1; *On the Trinity*, XV, 2.2, *NPNF* (1st Series), vol. 3, 200. Yves M. -J. Congar, *A History of Theology*, 45f에서 재인용함.

70) Augustine, *On the Trinity*, XV, 2.2, *NPNF* (1st Series), vol. 3, 200.

71) 어거스틴은 마르쿠스 바로(Marcus Varro)가 말하는 세 가지의 이방 신학의 형태를 언급하는 가운데, ‘신화적 신학’(극장의 신학)과 ‘시민적 신학’(도성의 신학)을 배격하면서,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들의 ‘본성적 신학’(자연적 신학)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는 “만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혜(Wisdom)이시라면, 철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Augustine, *The City of God*, VIII, 1, *NPNF* (1st Series), vol. 2, 144. 그러나 어거스틴은 참된 신앙이 없는 이성과 이에 기초한 본성적 신학(자연신학)은 항상 잘못된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인 방법(*the knowing of God*)도 수용하지만, 특히 영원한 진리에 대하여는 관조의 방법(*via contemplatiois; the seeing of God*)을 강조하였다.<sup>72)</sup> 어거스틴은 그 자신의 삶의 자전적인 『고백록』(*The Confessions*)을 통하여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을 기도문의 형식으로 찬양하는 신학함의 새로운 형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은총의 신학”(theologia gratiae)은 “오직 은혜로(*sola gratia*)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 16세기 종교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나아가 그의 『신의 도성』(*De Civitate Dei*)은 기독교 역사신학/철학의 심원한 기초를 놓았으며, 이것은 두고두고 서양 지성사의 토대가 되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지배하는 주권자요 통치자이시며, ‘두 왕국론’을 통하여 세상의 왕국은 멸망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임을 말한다. 또한 신학을 “신성에 대한 이해 혹은 강설”이라고 한 그의 정의에 따르면, 『삼위일체론』(*De Trinitate*)은 어거스틴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저작에서 서방교회의 소위 “심리적”(psychological) 삼위일체론을 확립하였는데, 먼저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용어의 선택과 관련하여 “한 본질 - 세 위격”(una essentia - tres personae)이라고 말하였다.<sup>73)</sup> 그러나 그는 “페르소나”(persona)라는 용어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고 하며, 카파도키안 신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하여 이것을 삼위 하나님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나아가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삼위일체에 대한 흔적들’(vestigia trinitatis)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삼위일체

72) Cf. Augustine, *On the Trinity*, XII, 14-15, XIII.1, IVX.1; A.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237-38.

73) 어거스틴은 동방신학자들의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인 *μία οὐσία - τρεις ὑποστάσεις*에 대한 이상적인 라틴어는 una essentia - tres substantiae이나, 이미 서방신학에서 substantia가 ‘일체’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의 우려가 있고, 또한 ousia에 대한 보다 좋은 번역어는 substantia 보다는 essentia라고 했다. Augustine, *On the Trinity*, V, 10, NPNF (1st Series), vol. 3, 92. 나아가 그는 신성은 우리의 언어관습을 전적으로 초월하기 때문에, “삼위”를 표현할 적절한 이름을 인간의 언어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VII, 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떤 표현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이를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 “tres personae”라고 부른다고 했다(V, 10; VII, 11).



에 대한 유비적 표현은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amans, quod amatur, amor; lover, be loved, love)<sup>74)</sup> 혹은 “기억, 이해, 의지”(memoria, intellegentia, voluntas)이다.<sup>75)</sup> 그러나 그는 삼위일체 신앙의 신비를 말하며,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론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찬양 및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중세 스콜라 신학(Scholasticism)의 여명을 밝힘으로서 “스콜라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캔터베리의 안셀름(Anselm of Canterbury, 1033-1109)**은 어거스틴의 영향과 이사야 7:9의 라틴역에 근거하여 신학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fides quaerens intellectum)의 행위라고 정의하였다.<sup>76)</sup> 신학에 대한 이 유명한 고전적인 정의는 신학의 본질적 한 측면을 압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실로 신학은 계시에 근거한 신앙의 이성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신학의 시작이며 필수적인 전제조건(sine qua non)이다. 그러므로 그는 “나는 믿기 위하여 이해를 추구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고 말한다. 이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음으로서 생겨나고(cf. 롬 10:17), 또한 그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참되게 알기를 추구한다. 왜냐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요 17:3).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제기하는 인식의 과제가 곧 신학의 필요성이며,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신지식’을 향한 그 치열한 책무를 부과한다. 안셀름은 그의 저작『프로슬로기온』(Proslogion)에서 신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그의 유명한 “신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논증”(the ontological argument for the Existence of God)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다.

74) Augustine, *On the Trinity*, VIII.14, *NPNF* (1st Series), vol. 3, 124.

75) Augustine, *On the Trinity*, X.17-19, *NPNF* (1st Series), vol. 3, 142f.

76) 기독교 신학을 정의함에 있어 고전적인 명제가 된 “Fides Quaerens Intellectum”이라는 표현은 사실 안셀름이 신존재에 대한 논증으로 유명한 그의 저작『프로슬로기온』(Proslogion)에 처음으로 붙인 책제목이다.

주여, 저로 하여금 당신의 높으심에 도달하지 않게 하심은 결단코 내 지성이 당신의 그것에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믿고 사랑하는 당신의 진리를 얼마만큼이라도 이해하기를 사모하나이다. 나는 믿기 위하여 이해를 추구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하여 믿나이다(*Neque enim quaero intelligere ut credam, sed credo ut intelligam*). 왜냐하면 ‘내가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이해를 주시는 주님이시여, 허락하시는 만큼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시되, 당신은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존재하시며, 당신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임을 알게 하소서.<sup>77)</sup>

나아가 “천사적 박사”(Doctor Angelicus)로 불리며, 중세 스콜라 신학(Scholasticism)의 정점이자 이를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신학을 “거룩한 가르침”(Sacra Doctrina)이라 부르며, 흔히 인용되는바, “신학은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며, 하나님께로 인도한다”(Theologia a Deo docetur, Deum docet, et ad Deum ducit; Theology is taught by God, teaches of God, and leads to God)고 정의했다.<sup>78)</sup> 그의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의 제1문항에서 “거룩한 가르침”에 대하여 논하면서, 아퀴나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이성으로 추구되는 철학적 탐구들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에 따라 이루어지는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거룩한 가르침은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간은 이성으로 탐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으로 하나님의 계

77) St. Anselm, *Proslogion: Fides Quaerens Intellectum*, trans. M. J. Charlesworth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9), 114-16.

78) Cf.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London: Blackfriars, 1964), I, 1a, article 1-7에서 ‘거룩한 가르침’(sacra doctrina, 곧 ‘신학’)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그러나 신학에 대한 상기 정의 자체는 흔히 아퀴나스의 것으로 언급되지만, 그의 저작 어느 곳에서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퀴나스 자신의 표현이 아니라 그의 후학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Cf. F.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I, i.7; A.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238.

시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Ia.I.1). 또한 아퀴나스에 따르면, “거룩한 가르침은 하나의 학문이라고 말해야 한다”(Dicendum sacram doctrinam scientiam esse). 하지만, 그는 이 학문이 “더 높은 학문의 빛에 의해 알려진 원리들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곧 “거룩한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계시된 원리를 믿는 것”(sacra doctrina credit principia revelata a Deo)이라고 했다(Ia.I.2). 따라서 “거룩한 가르침은 모든 관점에서 다른 학문들보다 우위에 있음이 명백하며”(Ia.I.5), “모든 인간의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maxime sapientia)이다”(Ia.I.6). 그 이유는 “거룩한 가르침은 자기 원리들을 인간적 지식에서가 아니라 신적 지식(scientia divina)으로부터 받기” 때문이며(Ia.I.6), 또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학문의 주제(subject)”이시기 때문이라고 한다(Ia.I.7).

#### IV.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 대한 정의와 이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면죄부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전통에 따라 비텐베르크성 교회 문에 신학적 공개토론을 위해 “95개조 반박문”(95 Theses)을 게시함으로써<sup>79)</sup>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이후 루터는 자신의 성경연구와 “탑의 경험”(1518/19년경)을 통한 “이신칭의 교리”의 재발견과 계속적인 신학적 돌파를 통해 사변적인 중세 스콜라 신학을 “영광의 신학”(theologia gloria)으로서 ‘거짓 신학’이라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이와 날카롭게 대비되는 참된 신학의 본질로서 “십자가의 신학”(theologia crucis)을 주장하였다. 그는 시편강해를 통해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Crux sola est nostra theologia),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요(綱要)이고 가장 순수한 신학이다”라

79) Cf. Kurt Aland, ed., *Martin Luther's 95 Theses* (Saint Louis: Concordia, 1967).

80) Luther, *Operationes in Psalmos* (1519-1521), WA 5, 176, 32; WA 5, 217, 2-3. 유해무,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송영』, 124, n. 9에서 재인용함.

는 유명한 신학적 정의를 남겼다.<sup>80)</sup> 그는 “십자가가 모든 것을 시험하며”(Crux probat omnia), “오직 십자가 자체가 가리키는 것만이 진리의 증인이다”(Crux ipsa sola index est testisque veritatis)라고 했다.<sup>81)</sup> 이와 같이 루터에 의하면, 오직 우리를 위해(pro nobis)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신학과 신지식이 있으며, 그러한 십자가의 신학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순교자의 신학”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루터에게 있어 “신학은 머리만의 작업이 아니라 경건이며 십자가를 따르는 고난의 삶 자체이다.”<sup>82)</sup> 그러한 루터의 신학에 대한 이해는 다음의 그의 진술에서 그 특징이 명료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불가시적인 것들을 피조물들을 통하여 인식하려고 바라보는 사람은 신학자로 불리어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진 가시적인 것과 하나님의 뒷모습을 인식하는 사람은 신학자로 불려질만하다.<sup>83)</sup>

엘리스터 맥그레스(Alister E. McGrath)는 이 논제들에서 나타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1) 십자가의 신학은 사변적인 것에 날카롭게 대립하여 서 있는 계시의 신학이다; (2) 이 계시는 간접적인 것이며 감추어진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3)

81) Luther, AWA 2, 325, 1; 그리고 AWA 2, 341, 15. Cf. Bernhard Lohse, *Luthers Theologie in ihrer historischen Entwicklung und in ihrem systematischen Zusammenha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정병석 역, 『마틴 루터의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65, n.70.

82) 유혜무,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송영』, 74.

83) Luther, WA 1, 354, 17-21. 원문은 다음과 같다: “19. Non ille dignus theologus dicitur, qui invisibilia Dei per ea, quae facta sunt, intellecta conspicit. 20. Sed qui visibilia et posteriora Dei per passiones et crucem conspecta intelligit.” 이것은 요한네스 폰 슈타우피츠(Johannes von Staupitz)의 초청으로 1518년 4월 26일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에서 개최된 어거스틴 수도사회의 신학 논쟁에서 루터가 발제한 신학적 명제들 가운데 일부이다.

84) Alister E. McGrath,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 Martin Luther's Theological Breakthrough* (Grand Rapids: Baker Books, 1990), 149-50.

이 계시는 인간의 도덕적인 활동이나 창조 질서 안에서 보다는 고난들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인식되는 것이다; (4) 그의 계시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믿음의 문제이다; (5)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난을 통하여 알려진다.”<sup>84)</sup>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신학에 있어 지성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는 신학에 있어 “세례 받은 이성”(baptized reason), “신앙에 붙들린 이성”(reason in faith)의 적극적인 역할을 말한다. 신앙은 지성 안에 있지만, 또한 지성을 지배하고 교정한다. 그러므로 신앙은 가르침 또는 지식이며, 진리를 대상으로 지닌다. 따라서 신앙은 모든 신조의 이념을 파악하는 변증법이다.<sup>85)</sup>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하며,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의 기초를 정립한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조직신학적 저작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cognitione Dei), 즉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아는 이중신지식(the twofold knowledge of God)이며, 이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지식을 말한다.<sup>86)</sup>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 세계와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에서 단순히 자신을 창조주(creator)로 나타내셨고,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cf. 고 후 4:6) 자신을 구속주(redemptor)로 보여 주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중의 지식(duplex cognitio)이 생겨난다(I. ii. 1).

그러나 인간의 지성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어두워져서 참된 신지식

85) Luther, WA 40, 2, 26과 28; 갈 5:5의 해석. Cf. Hans-Joachim Kraus, *Grundriss Systematischer Theologie*, 박재순 역, 『조직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75, n. 7.

86)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1559),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칼빈의 신지식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T. H. L. Parker,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2nd ed. (Edinburgh: Oliver & Boyd, 1969); Edward A. Dowey,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expande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4)를 참고하라.

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참된 신지식으로서의 신학은 오직 믿음에 의하여 가능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cf. 롬 10:17). 따라서 그는 “믿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의 말씀에서 얻는 것”이라 주장한다(III.ii.6). 나아가 “믿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가 된다”(III.ii.7).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 참된 신지식은 단순히 감각적 지식이나 지성적 인식이 아니라 “신앙의 지식”(notitia fidei)에 근거한 “경건”(pietas)의 지식이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결합된 것”이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solī Deo gloria)이다(III.ii.14; I.ii.1). 이러한 의미에서, 칼빈의 신학은 “경건의 신학”(theologia pietatis)이라고 할 수 있으며,<sup>87)</sup> 사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1536) 초판 부제(副題)를 “신학대전”(theologiae summa)이 아니라 “경건의 대전”(pietatis summa)이라고 붙였다.<sup>88)</sup> 그러므로 윌리엄 바커(William S. Barker)는 『기독교 강요』의 신학적 특징을 분석하는 가운데 말하기를, “우리는 『기독교 강요』의 용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이를 통해 경건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이 경건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분의 뜻을 순종함에 있다”고 한다.<sup>89)</sup> 실제로 칼빈에게 있어 경건이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의의 주제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니라 그의 신학 전체가 추구했던 궁극적인 관심이요 목적이라고 해야만

87) Phili C. Holtrop, 『기독교 강요 연구핸드북』, 박희석/이길상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13, 24, 73. Cf.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31.

88) Cf. Joanne Calvino,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 totam frere pietatis summan et quidquid est in doctrina salutis cognitu necessarium complectens, omnibus pietatis studiosis lectu dignissimum opus ac recens editum* (Basleae, 1536).

89) William S. Barker, “신학적 작품 『기독교 강요』의 역사적 배경,” in David W. Hall/Peter A. Lillback, eds., 『칼빈의 기독교강요 신학』, 나용화 외 7인 역 (서울: CLC, 2009), 41.

90) J. I. Packer, “서문” in 『칼빈의 기독교강요 신학』, 15.

할 것이다. 제임스 패커(J. I. Paker) 또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이란 성령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에게 신실하게, 즉 충만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sup>90)</sup> 나아가 칼빈에 의하면, 신학은 철저히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가르침에 기초해야 하며, 성경에 계시된 신지식,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밝혀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그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외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겠다.”<sup>91)</sup> 또한 칼빈은 교회에서 자신이 맡은 직책을 “교회의 교사”(doctor ecclesiae)로 칭하면서,<sup>92)</sup> 신학자는 성경의 참된 경건의 교리로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수행하는 직분임을 말함과 동시에, 신학은 교회를 섬기는 학문임을 분명히 한다.

## V. 정통 개혁파 신학자들의 ‘신학’에 대한 정의와 이해

### 1.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서의 신학 (Theology as the Knowledge of God)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Reformed Orthodox Theology)<sup>93)</sup>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란시스 튜레틴(Francis Turretin, 1623-1687)은 그의 『논박신학 강요』(*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에서

91) 칼빈, 『기독교 강요』(1559), I, 13, 21. 칼빈이 이해한 이러한 신학의 특징에 대하여 호플(H. M. Hoepfl)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말하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에게는 물론 오직 하나의 신학 대전(*summa theologica*), 즉 성경만이 있을 뿐이다. 『강요』는 그 어떤 의미에서도 성경 읽는 것을 대신 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의 요약으로, 성경의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loci communes*) 눈 있는 자들은 볼 수 있도록, 이를테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가르침’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H. M. Hoepfl, *The Christian Polity of John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22. 여기에서는 이승구, 『개혁신학 탐구』, 136에서 재인용함.

92)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1559), 서문.



그 저술형식을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의도적으로 빌려와 종교개혁 이후 그 교리적 내용에 있어 ‘개혁된 신학’(re-formed theology)을 철저하게 다시 체계화(re-systematization) 할 뿐만 아니라, 아퀴나스의 것으로 알려진 신학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교정한다: “신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대상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다루며, 중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I.i.7). 특히 튜레틴은 개혁신학의 이중원리(duplex Theologiae principium)를 “하나는 존재의 원리(essendi)로서 하나님(God)이며, 다른 하나는 인식의 원리(cognoscendi)로서 그의 말씀(his Word)”이라고 분명히 한다.<sup>94)</sup> 나아가 ‘신학’(theologia)의 역사적인 용법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나타내는바 신학의 가장 적절한 의미는 “하나님과 그 자신의 영광 및 인간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계시하신 거룩한 일들에 대한 교리적 체계”라고 정의한다.<sup>95)</sup> 나아가 튜레틴에 의하면, ‘신학’이 존재함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증명된다: (1) 스스로를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본성과 선하심, (2) 사람들과 이 세계가 모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 (3) 창조의 설계 - 하나님께서 이성적인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은 그들에 의해 인식되고 경배를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 (4) 사물의 본성 - 어떤 체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즉 지식의 대상(object) 과 주체(subject)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그리고 (5) 인간의 구원의 필요성 -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신지식이 요구되는 신앙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I.ii.1). 이와 같이 종교개혁 이후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신학의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개혁신학의 보편성과 교리적 체계화를 위하여

93) 정통주의(Orthodoxy)란 단순한 의미에서 “올바른 가르침”(right teaching)을 의미하며, 종교개혁자들과 그 계승자들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원리에 따라 중세신학에서 나타난 비성경적인 교리, 예전, 신앙의 관습들을 일소하고, 이 모든 것을 오직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 신학과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다.

94) F.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I.i.7. Cf. R. A. Muller,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vol. I, 154.

95) F.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I.i.8.

고대교회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정통신학(orthodox theologia)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전통 및 중세 스콜라 신학의 방법론을 다시 수용하였지만,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의 원리 및 신앙고백과 신학의 내용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종교개혁자들(특히 칼빈)의 신학을 따랐다.<sup>96)</sup>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팽배한 자유주의인 신학적 분위기 속에서 정통 개혁신학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자 노력한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는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학문적 체계”(scientia de Deo)인데, 특히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관하여 그리고 자신과 관계를 맺은 모든 피조물에 관하여 자신의 말씀 가운데 교회에 계시하신 그 지식이다”라고 정의한다.<sup>97)</sup> 나아가 바빙크가 “신학의 목적은 다름 아닌 이성적인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앎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다.”<sup>98)</sup>라고 말함에 있어 그가 칼빈주의적 개혁신학의 정수를 발전적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빙크는 개혁신학의 세 가지 기초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신학의 본질적 기초 원리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 외적인식의 기초 원리,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도구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내적인식의 기초원리, 성령을 통해 인간에 대한 조명이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저자로 삼으며, 하나님

96)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정통주의 신학 사이의 소위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문제”(the problem of continuity and discontinuity)에 대한 체계적이며 깊이 있는 논의와 관련해서는 Richard A. Muller, *After Calvin: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a Theological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한병수 역, 『칼빈이후 개혁신학』(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Idem, “Chapter 1. The Study of Protestant Scholasticism” in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vol. I, 27-84를 참조하라.

97)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1: *Prolegomena*, trans. J. Vrien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38.

98)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Uitgave van J. H. Kok, 1928),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vol. 1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302f.

99) Bavinck, 『개혁교의학』, vol. 1, 303.

에 대한 동일한 지식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신적인 자의 식 가운데 있는 원형의 신학, 계시로 주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모사의 신학, 그리고 계시에서 나와 사람의 의식에 들어가 수용된 주체 안에 있는 신학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sup>99)</sup>

그러나 또한 바빙크는 신학에 있어 “신앙과 지식의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신앙과 지식을 분리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이며 비성경적”이고, “신앙 없이 지식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식 없이는 믿음도 없다”고 한다.<sup>100)</sup> 그는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한다: “신학의 실재적인 ‘내적인식의 원리’는 신앙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사유, 기독교적 합리성(ratio christiana)이다. 신앙은 스스로를 인식하며 확실한 것이다. 신앙은 계시에 기초한다. 신앙은 지식을 포함하며, 그 지식은 전적으로 성경적 의미의 ‘안다’(γινώσκειν)라는 실천적인 속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신학은 신자들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 신학의 주체는 제도적 교회가 아니라 유기체,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다. 신학은 기독교적 사고의 열매이다.”<sup>101)</sup> 그러므로 바빙크는 기독교의 신학은 “예배의 합리적인 형식”(reasonable form of worship, λογικη λατρευα, 롬 12:1)이라고 한다.<sup>102)</sup> 특별히 바빙크는 개혁신학의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로 평가된다.<sup>103)</sup> 바빙크는 그의 보편적인 개혁신학을 두 가지 방향에서 정립한다. 먼저, 통시적인 측면에서, 그는 역사적/종합적 접근법을 통하여 고대 교부들,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 및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유산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동시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사상들까지 성경의

100) H. Bavink, “Geloofswetenschap”, *De Vrije Kerk* VI (1880), in H. Bavink, *Kennis en leven* (Kampen, 1922), 1-12 특히 4, 6. Idem, “Het dualisme in de theologie”, *De Vrije Kerk* XIII (1887, 1), 38. 여기에서는 Bavinck, 『개혁교의학』, vol. 1, 26에서 재인용함.

101) Bavinck, 『개혁교의학』, vol. 1, 789.

102)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1, 618.

103) Cf. 유해무, 『헤르만 바빙크: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 (서울: 살림, 2004).

104) 바빙크가 추구하는 이러한 개혁신학의 공교회성은 그의 『개혁교의학』 “초판 서문”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가르침에 따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화하며 유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개혁신학의 진정한 ‘공교회성’(catholicity)을 추구한다.<sup>104)</sup> 다음으로, 공시적인 측면에서, 비록 신학은 특별계시에 근거하지만 그 자신의 일반은총론에 따라 신학이 관계하는 영역을 모든 학문과 문화 및 실천적 영역들과 연관지우며, 나아가 “신학은 학문의 여왕”(Regina scientiarum)이라고 하며 신학의 ‘보편성’(universality)을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학문들은 피조세계의 특정영역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지만, 신학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2. 성경에 대한 학문으로서의 신학 (Theology as the Science of the Bible)

19세기 미국의 가장 저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이며, “프린스톤의 신학자”(Princeton theologian)라고 불리는<sup>105)</sup> 찰스 핫지(Charles Hodge, 1797-1878)는 자연과학적 방법론과 실증주의에 기초한 그 시대의 학문적 요구에 대응하면서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신학을 정의한다. 먼저 그는 모든 과학과 마찬가지로 신학을 명백한 하나의 ‘과학’(혹은 ‘학문’, science)이라고 말하며, “만일 자연과학이 자연의 사실들과 법칙들에 관련된 것이라면, 신학은 성경의 사실들과 원리들에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06)</sup>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적절하게 이해되고 정리되었을 때, 신학이라는 학문을 구성하게 되는 진리들을 성경 속에서 제공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신학자가 그 상호 내적관계 속에서 수집하고, 증명하고, 정리하여 제시해야

105) Cf. W. Andrew Hoffecker, “Charles Hodge: Princeton Theologian” in *Piety and the Princeton Theologians* (Phillipsburg, N.J.: P & R, 1981), 44-94.

106)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89 reprinted), 19.

107) Cf.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1, 1, 3.

108)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1, 19.

하는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다.<sup>107)</sup> 그러므로 신학은 “그러한 성경의 사실들을 체계화하고, 그 사실들이 포함하고 있는 원리들이나 일반진리들을 확정하는 것이다.”<sup>108)</sup> 핫지는 이것을 좀 더 상술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신학을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사실들과 또 그의 피조물로서, 죄인들로서, 그리고 구속의 수혜자들로서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사실들에 관한 학문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신적 계시의 사실들에 관한 학문으로 그 참된 영역을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들은 성경 속에 들어있다.”<sup>109)</sup> 이와 같이 핫지에 의하면, 자연과학자들이 자연 속에 들어있는 사실들을 탐구하여 일반적 법칙이나 원리들을 찾아내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신학자들은 성경에 들어있는 신적 계시의 사실들을 탐구하여 신학적 진리와 원리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이 과학자의 것이라면 성경은 신학자의 것이다. 성경은 신학자의 사실들의 저장소(창고)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연과학자가 자연이 가르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채택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다.”<sup>110)</sup>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핫지는 전통적인 신학의 방식으로서의 ‘사변적 방법’(speculative method, cf. 이신론적/합리적인 형식, 교리적 형식, 초월적 형식)과 ‘신비적 방법’(mystical method)을 배격하며, 스코트랜드의 상식철학(Common Sense Philosophy)에 입각하여 가장 적절한 신학방법론으로서 ‘귀납적 방법’(inductive method)을 제시한다. 핫지에 따르면, 신학자의 의무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실들(facts), 곧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해,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신의 관계에 관해 계시하신 모든 사실들을 확인하고 수집하고 결합시키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신학자는 성경에 계시된 사실들을 수집함에 있어 과학자들이 따르는 것과 똑같은 규칙들에 의하여 인도를 받아야 한다.<sup>111)</sup> 그러므로 핫지는 “신학의 참된 방법은, 자연의 사실들

109)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1, 21.

110)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1, 10.

111) Cf.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1, 11.

112)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1, 17.

이 자연과학의 내용들인 것처럼, 성경이 신학의 내용들을 이루는 모든 사실들 즉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귀납법”이라고 주장한다.<sup>112)</sup>

전제주의적 변증학(presuppositional apologetics)으로 개혁주의 신학적 변증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코넬리우스 반틸(Cornelius Van Til, 1895-1987)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정통적인 견해(orthodox view)는 바로 “개혁신앙”(the Reformed Faith)에서 가장 일관성 있게 표현된다고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모든 정통적인 [신학]에 있어 근본적인 것은 선재하시는 하나님의 자기존재와 성경 안에서 인간에게 주신 그 자신의 무오한 계시에 대한 전제(presupposition)이다. 조직신학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에 대한 질서 있는 진술을 제공하려고 애쓰는 학문이다.”<sup>113)</sup> 그러므로 반틸에 의하면, “조직신학은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의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하나의 전체로서(as a whole) 통일된 체계로(as a unified system)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이다.”<sup>114)</sup> 달리 말하자면, ‘성경 속에서 주어진 진리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서 조화롭게 밝히는 것’, 혹은 ‘성경의 내용을 취하여 그것을 하나의 체계적인 전체(a systematic whole)로 함께 드러내는 일’이 신학의 의무이다.<sup>115)</sup> 나아가 신학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며,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반틸은 간접적으로 과학이나 철학도 ‘신학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모든 학문분과가 하나님을 전제해야 하고, 동시에 전제(presupposition)는 최선의 증명”이라고 주장한다.<sup>116)</sup> 그렇기 때문에 영원부터 자충족적인 존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존재 원리”(the princip-

113) Cornelius Van Til,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2nd ed.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2007), 이승구/강용산 역, 『조직신학 서론』, 24(여기에서는 원문을 참조하여 번역을 교정했음).

114) Van Til, 『조직신학 서론』, 25.

115) Cf. Van Til, 『조직신학 서론』, 28, 29, 30.

116) Van Til, 『조직신학 서론』, 27.

117) Cf. Van Til, 『조직신학 서론』, 42-46.

ium essendi)이며, 또한 인간의 모든 신지식은 “유비적 지식”(analogical knowledge)이라고 말한다.<sup>117)</sup>

### 3. 신앙의 실천/삶으로서의 신학 (Theology as the Practice/Life of Faith)

“청교도 신학의 아버지”(the Father of Puritans)라고 불리며,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도식으로 유명한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는 그의 『황금사슬』(*A Golden Chaine*)에서 신학의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 17:3에 근거하여 “신학은 영원토록 복되게 사는 것에 대한 학문”(theology is science of living blessedly forever)으로 정의하였다: “성경은 훌륭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충분한 가르침이다. 그것은 많은 거룩한 지식들을 포함한다. … 주요한 지식은 신학(theologie)이다. 신학은 영원히 복되게 사는 지식이다. 축복된 삶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말미암는다(cf. 요 17:3).”<sup>118)</sup> 이와 같이 퍼킨스는 항상 제시된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영원히 축복된 삶을 사는 길을 추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신학의 주된 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경건주의적인 실천적 칼빈주의’로서의 청교도 신학(the Puritan theology)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퍼킨스로부터 신학적 영향을 받았고, “네덜란드의 아우구스티누스”,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을 내려치는 망치”라고 불리운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 1576-1633)도 그의 『신학의 정수』(*The Marrow of Theology*)에서 신학을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참된 실

118) William Perkins, *A Golden Chaine*, 11, col. 1, in *Works* (Cambridge, 1612-19), vol. I. 여기에서는 R. A. Muller,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vol. I, 155에서 재인용함. 이러한 퍼킨스의 신학에 대한 정의는 16세기 프랑스 개신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터 라무스(Petrus Ramus, 1515-1572)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며, 라무스는 신학의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신학은 잘 사는 것에 대한 교리”(theologia est doctrina de benne vivendo)라고 정의하였다.



천(orthopraxis)으로 정의한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교리 혹은 가르침이다”(Theology is the doctrine or teaching of living to God).<sup>119)</sup> 그리고 그러한 교리는 본래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에임스에 의하면, 신학은 본질적으로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이다. 신앙은 “전인적인 행위이며, 결코 지성만의 행위가 될 수 없다. 비록 신앙이 항상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지의 행위를 따르고 그 행위에 의존하는 지식이 없으면, 그 누구에게도 구원하는 지식은 없다.”<sup>120)</sup> 참으로 “산다는 것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에 대한 학문은 모든 연구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이다. 그러므로 에임스에 의하면, 신학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되게 살아가는 전인격의 행위로서의 믿음, 곧 ‘구원하는 지식’(saving knowledge)에 동반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의 ‘순종의 삶’이 목적이다.<sup>121)</sup> 또한 그러한 “신학적 삶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 갈 때,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다.”<sup>122)</sup> 이와 같이 실로 “신학의 모든 내용은 실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그러므로 “신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궁극적이며 가장 고귀한 것이다.

119) William Ames, *The Marrow of Theology*, trans. John D. Eusden (Durham, N.C.: The Labyrinth Press, 1983), 77. 이렇게 신학을 정의함에 있어, 에임스는 퍼킨스의 신학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교정 한다: “비록 행복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모두 이러한 삶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만, 그러나 올바르게 사는 것(εὐζωΐα)이 행복하게 사는 것(εὐδαιμονία)보다 훨씬 우월하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관련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선(goodness)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신학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사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선한 삶으로 더 잘 정의될 수 있다”(p. 78)

120) Ames, *The Marrow of Theology*, 80f.

121) 에임스에 따르면,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으로 이해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다.” Ames, *The Marrow of Theology*, 81.

122) Ames, *The Marrow of Theology*, 77.

123) Ames, *The Marrow of Theology*, 78.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방식으로 보내졌으며, 신적인 일들을 다루고, 하나님을 지향하며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최고 목적을 위한 지침이며 총괄 계획이다.”<sup>123)</sup>

영국 “청교도 신학의 왕자”(Prince of Puritans)라고 불리는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은 그의 『성경 신학』(*Biblical Theology*)에서 여러 가지 거짓된 신학을 배격하며, 참된 신학은 “교회의 신학”(ecclesiastical theology)이라고 한다. 나아가 그것은 ‘지식’(scientia, science)이라기보다는 ‘지혜’(sapientia, wisdom)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변이나 방법론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며(cf. 고전 2:4), 또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오웬은 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의 사역, 그분의 뜻에 관련된 신론과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 우리에게 대한 장래의 보상과 처벌에 관련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자신에 의해 계시된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바로 신학이다!”<sup>124)</sup> 그리고 오웬에 의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the Scripture)이 바로 우리의 신학(nostra theologia)이며, 그러한 만큼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포함된 각각의 그리고 모든 진리에 대하여 완전한 권위를 부여한다.”<sup>125)</sup> 이와 같이 청교도 신학자들은 칼빈주의 신학을 그 기초로 하여, 그것을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경건에 기초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함으로써 ‘교리와 삶’을 통합하는 경건의 개혁신학으로 발전시켰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 매일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해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추구하였으며, 이것이 곧 청교도들의 ‘신학’(theologia)이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 신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인 성경

124) John Owen, *Biblical Theology*, trans. Stephen P. Westcott (Pittsburgh, PA: Soli Deo Gloria Publications, 1994), 16f.

125) Owen, *Biblical Theology*, 17.

(the Scripture)이며,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living to God),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학이었다.

## VI. 나가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회에서의 “신학”(theologia)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역사적 정황들과 그것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개념 및 “신학”에 대한 정의와 이해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더불어 개혁신학에서의 ‘신학’ 이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theologia nostra)으로서의 “사도적 정통 개혁신학”(the apostolic-orthodox reformed theology)의 입장에서 “신학”(theologia)을 다음과 같이 삼위일체론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참된 신학(theologia vera)은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성경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sola Scriptura*),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solus Jesus Christus*),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solus Spiritus Sanctus*),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 곧 우리 주(the Lord),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오직 믿음으로(*sola fidei*) 참되게 아는 경건의 거룩한 가르침(*sacra doctrina*)이며,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바(cf. 요 17:3; 히 1:1-3), 오직 은혜(*sola gratia*)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참된 은혜의 거룩한 진리(*sacra veritas gratiae*)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구원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fides*)과 삶(행위/실천, *opera/praxis*)을 바르게 하고(*orthodox et orthopraxis*), 궁극적으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동시에 그에게 온전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다(*solus Deo gloria*). 따라서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경건의 신지식으로서의 신학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서 말미암는 신앙의 이성적인 행위이며, 전인

격적(全人格的)인 지식과 실천, 곧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의 기초가 된다. 나아가 신학은 특별계시인 성경과 일반계시인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을 비롯한 그의 피조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루며, 모든 학문과 문화, 그리고 세계의 모든 영역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갖기 때문에,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 및 창조세계에 관련한 모든 관계를 역동적(力動的)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 시대의 일반 과학과 학문들은 각각의 해당 연구주제와 영역들에 있어 하나의 단편적이고도 잠정적인 “진리주장”(truth-claim)과 연관되어 있으나, 신학은 오히려 그러한 측면에 있어 참되고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시 31:5, 사 65:16)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주장(요 14:6), 그리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요 16:13)을 따르는 것으로서, 총체적이며 영원한 진리(total-and-eternal truth)임과 동시에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saving-truth, 요 8:32)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잠 22:21, 엡 1:13)을 따라 이를 깊이 탐구하고 따르며 전파하는 “참된 학문”으로 규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참으로 성경에 이름과 같이, 참된 신학은 “[거짓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후 10:5). 그러므로 성경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오직 참된 신학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영광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cf. 롬 11:36). *Soli Deo Gloria!*